| 현불논단 |

# 서이초 교사 죽음을 애도하며…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학부모 지속적 민원으로 우울증 앓다**
**스스로 목숨 끊은 서이초 신임 교사**
**9월 4일 49재 '공교육 멈춤 날' 선포**
**정부와 국회에 교권수호법 제정 촉구**

**스승은 올바른 길 제시하는 선지식인**
**교육 힘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 이룩**
**학생 열패자 만든 교육정책 점검으로**
**교사 죽음 교훈으로 교육 전환 이뤄야**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임 박모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시간 중 학생들 간에 다툼이 있어 한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힌 사건'이 있었고, "선생님 수업시간에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라고 학부모가 화를 내며 강한 항의를 받은 며칠 뒤의 일이다.

해당교사는 26명 중 10명의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받으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문제는 가해자 학부모가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으로,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됐다는 점이다. 전국의 초·중등교사들이 매주 토요일 광화문광장 뙤약볕에서 붕괴하는 교실과 교권 수호를 호소하는 울부짖는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들은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정부당국과 국회에 교권수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직을 떠난 선배교사로서 참담한 우리 교육의 현실이 부끄럽고 슬프다. 그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었기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실 붕괴와 교권의 추락이다. 일부 지역의 유별난 학부모들의 갑질도 문제지만 이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다.

친구들과 잦은 갈등을 일으키고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과잉 행동을 하는 학생을 타이르고, 바뀌지 않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면 아동보호법 때문에 교사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소송을 당하는 것이 교육 현장의 실태이다.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면 "왜 우리 아이한테만 그러세요."하고, 또 어느 학부모는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학생 때문에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본다고 항의한다. 교사는 교편(敎鞭)을 잃어버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가 없다.

교사가 학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벌점도 안 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도 안 된다. 체벌은 더더욱 안 되고, 심지어 말로 혼내도 안 된다. 고 서이초 교사는 일기장에 "강한 훈육 방법 밖에 없다"고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며 기록하였다. 어느 시대나 문제학생은 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교사를 지도하려는 학부모는 없었다. 교육공동체의 3주체인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군사부(君師父) 일체라 하여 자신과 자식을 가르치는 스승을 나라의 임금과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따랐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스승에 대한 존경의 미덕이 사라지고 있다. 교단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하고 있다. 교권이 실추되어 교사가 죽어가고 있다. 교권이 무너지면 누구에게 배우나?

스승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인생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운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이 만인등(萬人燈)이 되어 결국 세상을 밝힌다. 선지식이 스승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입국(敎育立國)이라 하여, 교육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열성이 세계 제일인 나라이다. 교육의 힘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룩했다. 그런 대한민국이 교육이 나락으로 추락하려고 한다.

더 이상 입시 만능 교육은 안 된다. 5세 어린이부터 경쟁의 교육 지옥에서 인성은 사라진다. '의대 올인 교육(이과)', '로스쿨 올인 교육(문과)'으로 교육의 승자는 1%의 극소수뿐이다.

벼랑 낭떠러지기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는 대오각성하고 고삐를 잡아 회수(回首)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스물 세 살 꽃 다운 청춘, 서이초 교사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깨우친 교훈을 받들어서 지금 한국 교육의 전반에 걸친 대전환의 기회로 삼자.



지원 스님의
## 마음처방전

# 행복의 법칙

이 지구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안고 있는 본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마음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러한 생명의 법칙, 마음의 법칙을 깨닫고 있다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알고 생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법칙을 모르는 자는 건강을 바라면서도 병을 생각합니다.**

**마음의 법칙을 모르는 자는 성공을 바라면서도 실패를 생각합니다.**

**마음의 법칙을 아는 자는 건강하기를 원하기에 활기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마음의 법칙을 아는 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에 풍요로운 자신의 삶을 상상합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며 자신이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란 미움, 분노, 공포, 질투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인간이 가진 본성인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사랑에 위배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날은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어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선 마음속에 활기차고 희망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아름답고 기쁜 추억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남과 대화를 할 때에도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일찍이 무학 대사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될 수 있는 한 마음속에 불쾌한 모든 기억들은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슬픈 사연이나 우울한 암시를 빨리 없애버리고 나면 하루하루는 날마다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이러한 나쁜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찌꺼기보다 훨씬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남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 社 說

# 탑·부도 발견 성보 소유권 환수 '환영'

8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수정·가결됐다. 두 법률 개정안은 탑과 전각, 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고, 사찰의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지까지 부도와 탑 등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사찰 소유의 건조물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추정했다. 그렇기에 사찰들은 자신의 소유가 분명함에도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관정 절차를 진행하며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월정사가 진행했던 소유권 반환 소송이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월정사 경내의 국보 석조보살좌상 보존처리 과정에서 '청자과형병' 등 13점이 발굴됐으나 사찰이 아닌 국가로 귀속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갔다. 결국 되찾게 됐으나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해당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사찰은 앞으로 소유 건조물에서 발견되는 성보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조계종이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유권의 판정이 무의미한 사찰 소유 건조물의 발견 문화재가 사찰의 소유임을 다시금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직도 불교를 이중삼중으로 옥죄고 있는 국가 법령들은 많다. 현재 조계종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있다. 결국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불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 시 전문지 〈유심〉 재창간에 부쳐

시(詩)의 한자를 풀어내면 '말(言)'과 '사찰(寺)'이다. 다시 말해 '시'는 '말의 사찰'이며 '사찰의 말'이다. 그렇기에 시는 불교와 가장 가까운 문학이다. 스님들은 고도의 비유와 상징, 함축된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문학이 합일되는 시선일여(詩禪一如)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순수 우리 언어로 한국 선시의 시작을 알린 선지식이 바로 만해 한용운 스님이다. 한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만해 스님이 창간한 종합교양지가 〈유심(唯心)〉이다. 일제 탄압과 3·1 운동 준비로 제3호로 중단됐지만, 대중계몽을 위한 만해 스님의 원력은 후학들이게도 전해져 2001년 설악 무산 스님이 복간했다. 〈유심〉은 빠르게 국내 대표 문예지로 거듭났으나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2015년 폐간하게 된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23년 만해 스님과 무산 스님의 문인(文人) 후학들이 〈유심〉을 재창간하고 계간지로의 출발을 알렸다. (재)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하 선양회)는 만해 스님이 〈유심〉을 창간했던 1918년 9월 1일에 맞춰, 2023년 9월 1일자로 〈유심〉을 재창간하고 재창간 1호를 발행했다.

〈유심〉 재창간을 기점으로 선양회는 '무산상'을 제정해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내년부터 시상키로 했으며, 기존 '유심작품상'으로는 중진 문인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현재 한국사회는 분노가 팽배하고 혐오와 갈등으로 점철돼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만해 스님의 민족의식과 자유 평등 사상, 무산 스님이 강조한 조화상생의 삶이다. 〈유심〉이 두 선지식의 사상에 기반한 웅숭깊은 문학 정신을 구현하는 문예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